교회창립 1985.7.7 <No. 12714> 2020. 7. 26.

담임목사 윤 명 호 Rev. David M. Yoon
210 Washington Ave. Little Ferry, NJ 07643
교회. 201-229-1561 Fax. 201-2291562

dongsan alliance church of NJ 뉴저지동산교회

E: info@dongsanchurch.org W: www.dongsanchurch.org Youtube: https://youtube.com/c/njdac

Promise Land
약속의 땅 이야기

아름다운 성전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
은혜로운
성전건축 헌당이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

온라인 생중계

경배찬양 다같이
기도 백승화 권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1:38
말씀선포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정명진 목사
찬양 주님만 사랑하리
축도 윤명호 목사

새벽 기도회

매일성경QT
이사야 12-17장
월-토 새벽 5시 30분

금요밤기도회 오후8:30

All Generation Service

찬양 다같이
말씀 Chase 전도사

2020년 7월 26일
한국전쟁 정전 감사 주일 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 Online
EM 오후 1시 30분 / Online

* 예배에의 부름 다함께
* 사도신경 다같이
확신찬양 70장
중보기도 1부: 박용근 장로
2부: 주영진 장로
특별찬양 박요한 집사
성도의 교제 다같이
교회소식 인도자
성경봉독 열왕기상 11:30-33
말씀선포 "분열 왕국"
윤명호 목사
헌신찬양 322장
* 축도 윤명호 목사

모든 예배는 예배당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드려집니다

* 표는 모두 일어서서

담임 목회자 방송 선교

AM 1660
주일설교 - 7am (토) 2:30pm(주일)
5분칼럼 - 2pm (토) 2pm (주일)
Potcast "Dongsan Church" 검색

교회소식

2020표어 내가 매일 기쁘게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The Lord is near.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Philippians 4:4-7

1. **Paula Chung and Matthew Bracci 결혼,** 25일 어제 토요일 오후 5시에, Paula 자매님 (정다니엘/정카니 장로님 큰 따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두 신혼부부의 앞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Covid-19으로 인해, 교우님들을 모두 초청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교회당 예배안내**,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등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제 1단계로 예배당과 온라인에서 드립니다. 단 주일 온라인 예배는 2부 (11시)에 있습니다.
3. **교회당 3부 예배 8월 첫 주일부터**, 일시: 오는 8월 첫주부터 (8.2일) 오후 1시에 3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8월부터 1,2부 예배 좌석 예약제를 중지하고, 오시는 순서대로, 선호하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예배당 수용인원 이상 오실 때에는 친교실과 중고등부 예배실도 이용합니다.
4. **8월부터, '금요밤기도회'**를 '금요찬양집회'로 갖습니다.
5. **8월부터 주일 오전 11시 온라인 실시간 예배 실황** 예배후 '비공개 전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경우엔, 교회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교회 방문 기도 시간**, Open hours: 7am-6pm (월-금) 7am-2pm (토, 주일)
7. **'만나와 메추라기' 서로 돕기사역,** 대상자: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8. **'매일성경' 영어/한국어(7-8월),** 교회 강대상 앞에 놓아 두었습니다. (1권 $5)
9. **유치부/유초등부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일시: 7.30-8.1일(목-토), 담당자: 정명진목사님, Michelle 디렉터.
10. **한국 전쟁 정전 감사예배**, 일시: 오늘
11. **성찬 주일 예배**, 일시: 오는 주일 (8.2일)
12. **광복절 감사주일 예배**, 일시: 8월 9일
13. **온라인 심방**, 심방요청이 있으면, 편한 시간대로 꼭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14. **팟캐스트 전도 (Podcasts 인터넷 방송 선교),** 휴대폰 app에 'Spotify' 'Google Podcast' 을 설치하고 '윤명호목사' 혹은 'dongsan church'를 찾아 청취함.
15. **"코로나 특별 섬김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아시면 꼭 섬김팀으로 연락 요망. 코로나 특별섬김팀: 장영식장로님(팀장) 201-741-4488, 홍인기집사님, 201-290-3968
16. **작은 목자의 삶 5권,** 일시: 5.18일부터 매주 월요일 7:30pm, 대상자: 이지연, 이승희, 우은주, 김병희, 김원태, 이수연자매님. 인도자: 주영진장로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코로나 사태가 완전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도록**
* **인종차별을 포함한 모든 차별이 완전히 근절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 **한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단 허용법)**이 의회상정되지 않도록**
* 동산 모든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 당회 장로님들과 교구장/ 셀목자분들을 위해서
* 유치/유초등/중고등/EM 교역자들과 교회 모든 섬기는 스탭들과 가정을 위해서
* **7월의 선교사, 김득연/김수정선교사 (M국, 지도자양육사역)와 이영동/명희선교사 (K국, 지도자양육사역)**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12121000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 123대가 함께하는 선교전진기지로 성전 건축 헌당이 2년안에 이루어지도록.
* 컴패션의 자녀들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 **북한땅에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2020년 7월 8월 예배위원

주일	1부	2부	수요예배기도		강단 꽃	친교
7. 26	박용근	주영진	7.29	백승화	강형석, 정다니엘	
8. 2	최봉호	정다니엘	8. 5	이정선		
8. 9	최영식	정우원	8. 12	박양금		

2020년 3/4분기 행사일정

* **한국전쟁 정전 감사예배**, 7.26일
* **광복절 감사 연합예배**, 8.9일
* **Back to School 특새**, 8.10-15일
* **Staff 기획회의**, 8.29일
* **노동절**, 9.7일
* **'내 백성을 위로하라'** 9.27일 (주일)
* **사역박람회**, 10.11일
* **선교대회**, 11.1-8일

주요모임안내

1. **ANM(EM) 주일예배, 1:30pm Online**
2. **ANM(EM) 목요모임**, 7:30pm Online
3. **유초등부 수요모임**, 4:30pm, Online
4. **중고등부 수요모임,** 7pm Online,
5. **All Gen. 금요밤기도회,** 오는 금요일 (31일)
6. **전교인 새벽기도회,** 오는 토요일 (8.1일)
7. **당회,** 일시: 오는 8월 4일 (화) 5pm, 장소: 교회 친교실

목회수상 (200726)

담임목사 윤명호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
(The One who makes wars cease)

1950년 여름 시작된 한국전쟁은 한반도에 임한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수백만이 죽었고, 천만인이 이산가족이 되었고, 국토는 파괴되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주의하라고, **전쟁은 모두 함께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만약,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는 극도로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10년을 이어오는 시리아 내전에서 보듯이, **전쟁을 하기는 쉽지만 전쟁을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무기를 '하나, 둘, 셋' 동시에 내려 놓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강제적인 중재가 없이 전쟁을 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결코 쉽지 않은 휴전이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7월 27일 월요일은 한국 전쟁 정전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남북은 왜 서로 싸운 것일까요? 같은 동포끼리, 형제끼리, **왜 '원수의 시체를 넘고 넘어,' 서로 원수가 되어 죽기까지 피를 흘리며 싸운 것일까요?** 보통 전쟁은 누군가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의 권리를 빼앗고 자유를 빼앗고, 소유를 빼앗으려고 누군가 욕심을 부릴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전쟁의 결과는 모두의 죽음**입니다. 1950년, 북한 김일성은, 적화통일의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는 한국전쟁이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동자 농민의 해방 전쟁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십년이 지난 오늘날 확연히 드러난 사실은, 김일성 일가의 전제적 통치를 위한 무력 통일전쟁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 얼마나 놀랍도록 무서운 죄인들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니, 사람에겐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한도 북한도, 아군도, 적군도, **너도 나도, 모두 비인간**이 되었습니다.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편가르고, 배반하고, 모함하고, 살인, 방화, 강도, 강간, 온갖 비인간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바로 현실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생활이 어느 순간에 꿈을 꾸듯이 그렇게 멈췄습니다. 휴전입니다. 전쟁을 쉬면서, 우리는 드디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도병, 한창 공부할 나이에, 강제적으로 징집되어, 같은 동족을 쏴 죽이라는 명령받고, 전선에 투입되어, 맥없이 쓰러졌을 그 **아까운 청춘들이 휴전으로 인해, 책상앞으로 돌아와 공부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저절로 고양된, 치열한 삶의 의지는 한국전쟁후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 한국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어, 여러가지 기적적 성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휴전이 쉬운 줄 압니다. 그러나 **싸움은 쉽지만, 휴전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망해야 끝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인간은 전쟁을 시작하지만 멈추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미워는 잘하는데 용서하지 못합니다. 쪽박은 잘 깨는데, 깨진 박을 붙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민족은 그 어려운 휴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정전 협정문에는 남한 대표의 사인이 없습니다. 한국 전쟁 정전은, 중국 인민군 총사령관 펑더화이와 북한 김일성 그리고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의 사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판단할 때, 휴전은 우리 한국인이 이루어낸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 지옥에서 벗어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소중한 휴전의 은혜를 준 것일까요**? 성경은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시 46:9절) 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휴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는 7.27일 한국전쟁 정전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소중한 휴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샬롬.